사설

취재 거부하는 대학, 소통은 어디에

최근 우리신문 기자가 '서울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와 관련해 총무관리처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총무팀은 업무상 사정으로 당분간 인터뷰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총무팀장에게 직접 거절 사유를 문의하자, 돌아오는 답변은 부서 인력이 부족하고, 본인은 업무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어 인터뷰에 응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총무관리처장에게도 상황을 전달해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두 차례 총무관리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으나 두 번 다 총무관리팀장 및 처장을 만날 수 없었다. 비슷한 기간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취재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다전공 의무이수제와 관련해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및 전자정보대학 행정실에 연락했으나,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취재 협조 안 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행정실을 통한 취재가 어렵다고 판단해 각 단과대학장에게 직접 취재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다음날 행정실로부터 다시 한번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학사지원팀은 대학주보 취재에 대면·유선 응답은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으며 서면으로만 응답하고 있다고 못 박기도 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은 대학주보 기자들이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대학주보의 취재 요청에 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님은 알고 있다. 업무상 사정으로 인터뷰가 어렵거나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취재 요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통 창구를 제한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기자는 사안의 실체를 확인하고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단순히 대학주보의 취재 활동이 위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학주보를 통해 대학의 주요 사안을 접하는 구성원들의 알 권리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러 부서의 취재 대응은 결국 대학주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표현일 것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보도 방향에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하지만 보도에 대한 불만이 취재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다른 언론과 달리 취재 범위를 우리학교로 한정하고 있는 대학주보는 대학과 대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주요 사안을 취재하고 구성원에게 전달하며, 대학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언론이다. 그 어떤 곳보다 활발한 소통과 구성원의 포용이 필요한 집단이다. 부서의 취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단순히 대학주보에 대한 불신으로만 해석할 순 없다. 총무관리처와 정보처 등 일부 부서는 우리 신문에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부서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구성원과의 소통을 제한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대학 차원에서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 향후 중장기 거버넌스 계획에 부합하는 인력 계획이 필요하다.

동시에 각 부서는 대학주보의 취재를 단순한 업무 부담이 아닌 대학 구성원과 소통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 대학주보가 대학 발전의 한 주체로서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열린 태도와 포용을 기대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18대 총장 선임, 논의는 지금부터

시간과 관심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제18대 총장 선임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기획을 준비하며 지난 두 차례의 총장 선임 과정을 살펴봤다. 16대에는 처음으로 구성원 투표가 도입됐지만, 17대에서는 투표가 사라졌다. 4년 만에 방식이 크게 바뀐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16대에는 투표 반영 비율을 두고 합의와 번복이 이어지면서 총장직무대행 체제가 13개월간 계속됐다. 17대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를 피하려다 구성원 대표 간담회 사흘 만에 구성원 투표가 빠진 제도가 확정됐다. 당시 교수의회 의장도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하며 느낀 것은 총장 선임의 방식만큼이나, 그 방식을 정할 시간이 충분했느냐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난 두 번의 선임제 모두 충분한 논의 없이 일정에 맞춰 급하게 제도를 정했다. 동일한 패턴이 두 번 반복됐지만, 이사회는 지난 선임 과정에 대한 평가도, 18대 총장 선임 방식에 대한 계획도 밝힌 적이 없다.

학생의 관심도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16대 구성원 투표 유권자 3만 6,945명 가운데 학생은 3만 2,059명으로 90% 가까이 차지했다. 그럼에도 16대 구성원 투표에서 학생 투표율은 39.0%로 교원(79.3%)의 절반에 그쳤다. 17대 때도 학생 대표가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장 선임은 교수나 법인만의 일이 아니다. 학생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학생의 권리는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

18대 총장 선임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법인과 대학, 구성원 대표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논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충분한 시간과 구성원의 관심이 함께할 때, 다음 총장 선임은 지난 두 번의 과정과 달라질 수 있다.



만평 시간에 쫓긴 선임제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태영특수프린테크

세시봉

불안의 끝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밤 10시가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핸드폰이 울린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엄마다. 홀로 상경한 딸이 걱정되는 엄마는 지금 어디쯤인지,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늘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처음에는 매일 걸려 오는 전화가 싫었다. 엄마의 걱정이 유난스럽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걸려 오는 전화를 마냥 귀찮게 여길 수 없게 됐다.

최근 잇따른 여성 살해 사건을 보면서다. 딸이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는 엄마의 불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지난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3시간 20분 동안 514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다뤘다.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과거 연인이었던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피해를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한 시간 전에도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관계성 범죄' 희생자라는 사실이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만 법도, 경찰의 조치도 피해자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성들의 불안은 막연하거나 과장된 감정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2025년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7명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최소 389명이다.

교제 폭력은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되고, 끝난 뒤에도 위협으로 남는다. 이별을 통보하거나 연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시작되거나 심해지기도 한다.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되는 신고에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제도 자체로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뒤에야 고통이 끝나는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엄마에게 걸려 오는 전화가 더는 딸의 무사함을 확인하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으면 한다.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인사로 남기를 바란다. 여성들이 매일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이 끝나길 바란다.